FTA, 학교로 가다 5.0 서울 명지고 수업 현장

데이터로 FTA 배우고, 국제 무역 이슈 읽고

미국 정부의 강제노동 관세 부과에서 우리나라의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을 둘러싼 논의까지, 최근 무역 시장의 변화가 눈에 띈다. 무역에 대한 이해와 국제 역량을 갖춘 인재가 필요한 상황, 내일신문과 내일교육은 지난 9월부터 시작한 'FTA, 학교로 가다 5.0' 교육 프로그램을 11월까지 진행할 예정이다. 전국 8개교에서 학생 225명이 참여해 변화하는 무역 시장에서의 FTA 전망과 우리 농업의 경쟁력을 함께 고민했다. 학생들은 2~3일에 걸쳐 FTA와 무역 이론을 학습한 뒤, 실제 FTA 데이터를 활용해 통계와 회귀 분석 실습을 진행했다. 이후 조별로 주제를 선정해 탐구하고 보고서를 발표했다. 서울 명지고에서 진행된 수업을 살펴봤다.

취재 송지연 기자 nano37@naeil.com

최신 무역 이슈 다루는 FTA 수업

"무역은 우리에게 어떤 이익을 가져다줄까?"

지난 10월 14일 서울대 농경제사회학부 안병일 교수가 서울 명지고 학생들에게 던진 질문이다. 안 교수는 관세와 무역 장벽을 철폐하는 FTA의 의미를 본격적으로 다루기 전, 학생들이 무역의 가치부터 떠올리도록 했다. 학생들은 기념일에 포도주를 마시고, 저렴한 가격으로 뼈해장국을 먹는 일상의 뒤편에 무역과 FTA가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며 자연스레 수업으로 빠져들었다.

안 교수는 그래프를 바탕으로 소비자 잉여와 생산자 잉여의 개념과 무역으로 얻는 이익을 설명했다. 무역 이후 소비자는 저렴한 농식품을 구매하지만 농민을 비롯한 생산자는 손실을 보는 상황을 제시하며, 정부가 농민들을 지원하는 배경까지 짚었다. 한국 정부가 가입을 고민하는 CPTPP도 함께 다뤘다. 안 교수는 적극적으로 FTA를 체결한 한국과 자국 농민들의 반발을 우선해서 고려한 일본의 행적을 비교하고, FTA 체결 건수가 적었던 일본이 CPTPP를 주도하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한국 역시 CPTPP 가입을 통한 교역 확대와 농민 보호 사이에서 갈등하는 상황에 봉착했음을 설명했다.

학생들은 상세한 설명 덕분에 까다로운 무역 이론과 통계 분석을 수월하게 배울 수 있어 좋았다고 평가했다.

명지고 이창준 교사는 "이번 프로그램은 학생들이 통합사회 개념을 심화해 배우면서, 경영·경제·통계 분야의 역량까지 기를 기회라고 생각해 신청했다. 실제 수업은 최신 국제 경제 정보는 물론 회귀분석 과정까지 다뤄 더욱 뜻깊었다. 까다로운 통계 분석에 도전하는 과정은 학생들에게 좋은 자극이 될 것 같다"라고 말했다.

학생이 말하는 'FTA, 학교로 가다 5.0'

명지고 학생들은 5명씩 조를 구성해 FTA와 관련된 주제를 선정, 실제 회귀 분석을 통해 얻은 결과를 보고서로 정리해 발표했다. 이 중 '한EU FTA가 프랑스산 포도주 수입에 미친 영향'을 탐구한 2학년 김도겸, 김진, 김태건, 김혜빈, 신민준 학생 팀이 교내 우수 사례로 선정됐다. 학생들은 FTA 체결 여부와 각국의 GDP, 환율 등이 프랑스산 포도주 수입액에 미친 영향을 회귀 분석으로 알아봤다. 이를 바탕으로 한EU FTA 체결 이후 국내 포도주 시장에 나타난 문제점을 밝히고 시장의 전망을 예측하고자 했다.



명지고 교내 우수 사례로 선정된 학생 팀.
왼쪽부터 명지고 2학년 신민준 김도겸 김진 김혜빈 김태건 학생.

사진 명지고

Q | 탐구 과정이 까다롭지는 않았나?

김혜빈 무역과 경제 관련 용어들은 학교 사회 시간에도 배웠기 때문에 어렵지 않았어요. 문제는 통계였죠. 스스로 회귀 분석을 하는 건 처음인 데다, 엑셀 프로그램에도 익숙하지 않다 보니 모르는 용어가 많더라고요. 다행히 인터넷이나 AI에서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었어요. 점차 회귀 분석 과정을 이해할 수 있었고, 다양한 변수 중 무엇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고 그렇지 않은지 감이 잡히더라고요.

김태건 한데 회귀 분석 결과가 의외였어요. 당연히 FTA 체결 여부와 포도주 수입액은 양의 상관관계를 띨 거라고 생각했는데, 분석 결과 음의 상관관계가 나와 당황스러웠어요. GDP, 환율 등 다른 변수까지 포함해 다중 회귀 분석을 시도하다 예측과 다른 결과가 나온 것 같더라고요. 결과를 해석하고 오류를 검증하려면 더 많은 통계 지식이 필요해 골머리를 앓았죠. (웃음) 그래도 포도주 수입액 변화에 영향을 주는 다른 요인들을 발견해 흥미로웠어요.

신민준 한EU FTA가 체결된 배경과 이를 둘러싼 사회적 여론을 조사하는 역할을 맡았는데, 한미 FTA와 달리 눈에 띄는 기사가 없어 애를 먹었어요. 그러다 한EU FTA가 상대적으로 주목받지 못한 이유에 집중하니 시야가 넓어졌어요. 유럽은 식품 위생 규정이 엄격한 편이에요. 광우병에 대한 우려가 미국산 소고기 수입 반대 시위로 이어진 것과 달리, 유럽 식품은 안전하다는 믿음이 있어 수입에 대한 반발이 크지 않았을 거라고 가정하고 조사를 이어갔죠. 이 과정에서 상대 국가에 대한 인식이 FTA 체결을 둘러싼 여론에 영향을 미치는지 궁금해졌어요.

Q | 배운 점과 향후 활용 계획은?

김도겸 평소 국제 경제 뉴스를 자주 보고, 관련 전공도 고려 중이에요. 국제 경제의 큰 축인 FTA를 데이터를 활용해 탐구한다는 점이 매력적이라 이 프로그램을 신청했죠. 한EU FTA 협정문을 꼼꼼히 읽으면서, 한EU FTA가 상호 관세 철폐뿐만 아니라 양국의 지적 재산권 보호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노력까지 규정했다는 점을 알았어요. FTA는 단순한 무역 협정을 넘어 양국이 상생하며 발전하는 토대임을 깨달았죠. FTA 체결로 기술 교류가 활발해진 사례가 있는지도 알아보고 싶어요.

김진 사실 무역과 경제에 큰 관심이 있지는 않았어요. 한데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경제와 무역의 연관성을 배웠고, 어려운 경제 그래프도 조금이나마 읽을 수 있게 됐어요. 특히 예상과 다른 결과가 나왔을 때 여러 변수를 검토하며 문제를 해결한 과정은 끈기를 길러줬어요. 이제는 경제 분야에 흥미가 커져 다른 국가와의 FTA에 관해서도 탐구해보고 싶어요. 포도주뿐만 아니라 프랑스의 패션 상품이 한국 시장에 미친 영향도 궁금해요.

[제작 지원 2026년 FTA 분야 교육 홍보 사업]